

■ 세 미 나

## 환 영 사

### 최 현 림

이사장

신입 전공의 여러분,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1979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가정의학과 전공의 교육이 시작된지도 어언 23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가정의학과가 전공과목으로 인정된지도 벌써 1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가정의학과 수련병원의 수도 105개 병원에 신입전공의 수만도 280명을 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1979년 9월부터 ‘가정의학 연수교육’을 처음 실시하여 전국에 의사들의 연수교육을 확산시켰으며 1980년 1월 대한가정의학회가 창립된 이래 그해 11월부터는 가정의학회지를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계에 서울에서만 열리던 학술대회도 1992년 봄부터는 부산을 시발로 춘계학술대회를 각 지회가 주관하여 지회별로 지방에서 돌아가면서 개최하여 1년에 두 차례 춘·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정규 수련 과정을 마친 이사장과 이사진이 학회를 이끌게 되는 뜻 깊은 출발점이 되는 대회입니다. 또 지난해 연말에 창립된 제주지회가 처음으로 춘계학술대회를 주관하게 되는 대회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학회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제일 남단 이곳 제주도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련병원 스태프들의 참여와 간행위원들의 노고로 이제 가정의학과 의 교과서 ‘임상편’이 2년간의 노력 끝에 출판하게 되어 출판기념회를 갖게 되는 대회입니다. 또 한국화이자 제약(주)과 보건복지부, 조선일보사의 후원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건강강좌”와 오는 4월 14일 여의도에서 “건강 걷기대회” 행사를 벌여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들에게 가정의학과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회 회원들이 전국 의사협회의 지역사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고, 의사협회 중앙회 상임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 가정의학회의 활동은 활발해지고 있어 1983년에 이미 세계가정의학회의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1993년에는 한·일 가정의학 심포지움, 1995년 한·대만가정의학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였고, 1997년에는 세계가정의학회 아·태지역학술대회를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 세계가정의학회회를 비롯하여 아·태가정의학회, 미국가정의학회, 구미가정의학회, 미국 가정의학교육자협의회 등에 활발히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해에는 허봉열 전 이사장께서 아·태가정의학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계십니다.

학회의 사무실도 이사장이 근무하는 병원이나 근처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것을 1993년에는 지금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자리에 학회 사무실을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학회가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에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의 일차의료를 책임질 수 있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차의료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는 여러 신입 전공의의 여

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수련프로그램이 많아지다 보니 각기 특성은 있지만 문제점들이 많아지고 있어 수련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 하여야겠고 또 표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질관리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학회에서는 수련과장들에게 전공의 수련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앞으로 전공의 수첩도 보다 철저히 감독·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련기간 중 학회의 참석은 물론 연구논문의 발표와 전공의 평가시험을 전문의 시험에 반영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각 대학의 학부 과정에 가정의학과 과목의 강좌가 개설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대학에 개설되어야 하겠고 의사국가시험에도 보다 많은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문항개발과 선택 과정에 참여하여야 하겠으며 학문적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도 많은 대학에서 설치되고 있는 가정의학교실이 모든 대학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입 전공의 여러분,

처음 가졌던 가정의학에 대한 정열과 마음을 전공의 과정을 마칠 때까지는 물론이고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되어 지역사회 의료인으로 활동할 때에도 변함없이 지니시길 바랍니다. 가정의학이 지니고 있는 철학 즉 가족을 대상으로 일차의료의 전문가로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책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한배에 탄 공동의 운명체입니다. 학회의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우리 학회가 더욱 발전되도록 서로서로 이해하며 도와 가장 모범적인 학회, 가장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다시 한번 가정의학과를 지원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